

비대면 시대의 성폭력, 법적 과제

장다혜 (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)

비대면 시대의 성적 폭력

- 새로운 성적 폭력의 특성

- : 대면 없이 접촉(피-가), 비대면(가-가) → 디지털 및 네트워크 기술 매개, 사이버 스페이스

- : “피해자에 대해” 에서 “피해자에 대한” 폭력 → 단톡방 성희롱, 지인 농욕, 게임 캐릭터 성희롱..

- : 확장된 인격(personhood) → 얼굴을 넘어 신체 이미지, 게임 아바타 등 디지털화된 인격

- : 비신체화된 폭력의 방식 → 언어/이미지 이용 방식의 괴롭힘

- 새로운, 그렇지만 전혀 새롭지 않은 폭력

- : 여성/여성 신체에 대한 성적 대상화, 도구화, 사물화, 비인격화

- : 기술로 인한 변화는 제도화라기 보다는 폭력 방식의 확대, 전시를 통한 폭력의 가시화 등 전면화(이에 대한 저항 역시 전면화)

처벌 규범으로의 포섭과 쟁점

- 전통적인 성폭력 범죄 개념

: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→ 대면 + 신체적 방식

-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 범죄 신설

: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(1994년)

(제정이유) “전화·컴퓨터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가 빈발하여 기존의 법체계로는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 또는 강화”

: 비신체적 접촉 방식 포섭 → 비신체적 비대면 방식 포섭 :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설(1994), 카메라등이
용촬영죄 신설(1998), 유포행위 추가(2006), 동의촬영물 비동의 유포행위 추가(2012), 복제물 및 자기촬영물 추
가(2018), 소지 및 시청행위 추가(2020)

처벌 규범으로의 포섭과 쟁점

-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보호법익
: 성적 자기결정권, 일반적 인격권, 성풍속 확립
: 단, 비동의촬영에 대해서는 성적 자기결정권(성적 자유),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 침해
- 그 외의 처벌규범은 명예훼손, 모욕죄
: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, 즉 외부적 명예
- 비신체적 비대면 방식의 성적 폭력이 침해하는 권리 설정에 대한 평가 필요
: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? 포괄적 인격권으로서 존엄에 대한 침해? 사회적 질서 훼손?

처벌 규범으로의 포섭과 쟁점

- 성적인 폭력의 기준 설정의 문제

- : “성적 욕망의 만족”, “(인격적 존재로서의)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” – 형법상 성적인 것의 개념

- : 사회적 평가 중심의 성적 폭력 개념을 처벌규범의 영역으로 포섭할 때의 한계

-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에 대한 대응 방식의 문제

- : 여성혐오에 대한 대응 방식을 처벌규범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는지? 차별금지로 해결할 수 있는지?

- : 보호의 확대가 아닌 섹슈얼리티 젠더 구조(성적 대상화, 이중규범..) 변화를 위한 저항 방식의 고민
필요